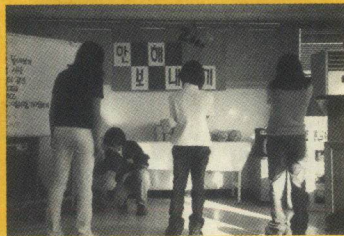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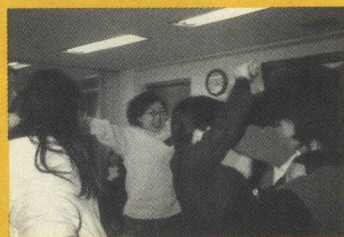
2000 한해보내기



공로상 수여



열린터 아이들의 멋진 춤습씨



신나는 게임



벼룩시장



상담원 선생님들

# 나눔터

2000 · 12

제36호

## 보관용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 도망치는 여성들(김현선)

여기는 상담실

4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하은주)

열린터

6

유나의 편지(유나)

성평등 교육문화센터 -육아시설 아동의 특성과 그에 따른 성문제(김영정)

성폭력문제연구소 - 장애인 성교육이 남긴 과제(유은주)

정보화사업부

11

성평등문화만들기 사이버연속토론회를 정리하며(김영정)

영화평 -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문효진)

여정사 -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유래와 의미(장윤경)

오늘의 쟁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도문의 시행을 앞두고(변은재)

성문화읽기

15

일상속의 성문화읽기

나눔터 그림판 - 상담소 가는 길의 성추행 사건(한전정화)

나눔터 기사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사단법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이런일을 했습니다

### 1. 15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제 1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4 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6명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2. 10월 12부터 13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심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0월 22일 가톨릭대학교 강남 성모병원 의학연구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의료진 워크숍이 많은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28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워크숍이 경찰, 의료진, 상담원과 함께 진행되어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 3. 열림터 원예치료 프로그램

1. 11월 5일(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용인의 황새울 농원에서 고구마 캐기와 인절미 만들기 그리고 인근의 수목원에서 산책로를 따라 무르익은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과 실내에서 여러 가지 소재와 재료로 만들면서 느꼈던 답답함이나 부족함, 부자연스러움 등을 새롭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원예치료 시간에는 수목원에서 모이온 낙엽과 열매를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열림터 거실에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 12월 10일(일)에는 서해안에 있는 천리포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리포수목원의 7000여종의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많은 종류와 희귀함을 보며 자연의 방대함, 오묘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들른 천리포해수욕장에서 겨울바다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 4. 21세기 미디어운동센터

1. 지난 9.23-11.11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중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영상제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캠코더를 활용해서 영상자료를 제작해 보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참가하신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영상제작 과정에 대해 알게 된 것과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데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2. 십대매매춘에 관한 영상다큐제작  
원조교제에 유입되었던 청소년들과 그러한 가능성이 잠재된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취재를 통해 십대매매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다큐멘터리(약30분)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의식과 원조교제에 대한 그들의 가감없는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5. 정보사업부

#### 2000성평등문화만들기 사이버연속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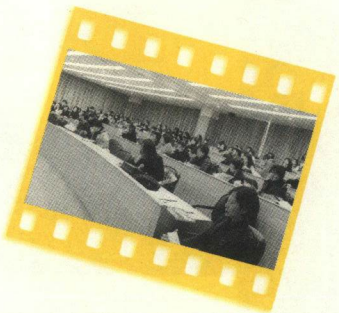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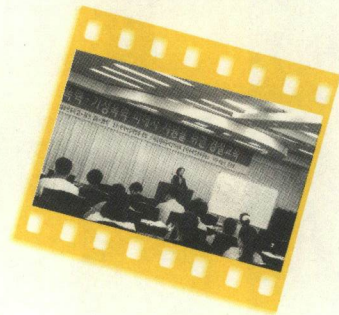
제3차 토론회가 11월 24일~30일 일주일간 천리안, 넷츠고, 유니텔, 여자와 닷컴에서 열렸습니다. "정력, 남성의 상징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강한 남성'을 강요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6.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전국 5개 지역(전주,대전,대구,부산,서울)을 순회하면서 육아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100개 시설 17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 동안 토론과 강의를 병행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7. 성폭력문제연구소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수]를 11월 22일(수)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기초발제와 함께 장애아동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성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소개되었고,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성교육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 도망치는 여성들

글 | 김현선(새움터 대표)

“목포에서 도망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여성은 목포의 매춘업소에서 도망쳤다고 울먹거리다. 군산, 광주, 대구, 서울, 부산, 경기.. 도망친 여성들을 상담하다 보면, 매춘집결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전국에 걸쳐 퍼져있어서, 마치 한국 전역이 매춘집결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새움터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도망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빚문제와 포주의 위협 등이고, 매춘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의 상황이 지역에 상관없이 유사하며, 이러한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매춘여성들의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춘여성들이 매춘업소로 유입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취약성이다. 빈곤한 집안환경이나 실직, 성폭행, 가출과 같은 문제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유흥업소나 매춘업소의 조직적인 성매매에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취약성은 매매춘문제의 주요한 원인과 결과를 매춘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의 문제야말로 사회적 빈곤과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매춘업소로 '유입하고 길들이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속임수와 폭력의 문제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는 일'이라고 속여서 매춘업소로 유입하고, 일단 매춘업소로 들어온 여성들에게는 '매춘여성으로 길들이기' 위하여 강간, 폭행, 감시, 감금 등의 폭력이 사용된다.

셋째, 포주들은 빚의 액수를 조작하여 여성들을 착취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여성들은 매춘업소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백만원 이상의 빚을 업소에 지게 된다. 그러나 이전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소개비, 매춘업소에서 강요하는 선불 방세나 가구·옷 등을 구입하면서 빚이 늘게 된다. 즉 여성들은 돈 한푼 직접 받아보지 못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수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을 갚고 매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 20~30명의 남자라도 포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화대를 계산해보면, 대부분 2~3개월이면 이 빚을 모두 갚게 되지만, 포주들은 방세·세탁비·식대 등으로 수백만원씩을 착취하거나 이 중장부를 만들어 여성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빚을 갚고 매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공권력이 포주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군산화재참사의 한 희생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경찰이 이 여성의 집으로 찾아와서 딸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쳤다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도망치는 경우, 포주가 고용한 폭력배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나서서 여성들을 찾아다니는 상황이라면, 매춘업소로부터 도망친 여성들은 한국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

군산사건은 한국사회 매매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매춘여성을 통제하는 거대한 범죄조직, 매매춘관련 범죄조직과 관련공무원·경찰공무원의 유착관계, 매매춘업소를 통해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득, 직업소개소를 통한 성매매, 감금과 협박과 같은 매춘여성들을 길들이기 위한 폭력의 심각성 등.

그래서인지 군산사건 후, 전국의 매춘업소로부터 도망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망친 여성들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성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예전에는 매춘업소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왜 도망치지 못하는가?"라고 비난하고, 도망친 여성들에게는 "왜 그런 곳에 들어갔느냐?"며 손가락질하던 사회가 최근 들어 여성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매춘을 조장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와달라며 전화하는 가족들이 늘어난 것도 큰 변화이다. 딸의 잘못이라며 창피해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매매춘이 자신의 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탈매춘을 위하여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여성단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군산화재참사도 사건 직후부터 헌신적으로 끈질긴 활동을 벌인 여성단체들이 없었다면, 그대로 묻혀버렸을 사건이었다. 지금까지의 활동만으로도 여성단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앞으로도 매매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과제들은 더욱 많다.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인식을 바꾸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모두 힘들고 벽찬 과제들이지만, 지금까지처럼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연대하여 활동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척척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한다.

나눔터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글 | 하은주(일반상담부 간사)

강간과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가운데 성폭력피해자들은 피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수사관의 인식부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2000년 11월 2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 □ 성폭력 사건의 증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1999년 3,692건(5,397회)중 성폭력 피해상담은 2,564건으로 1998년 2,085건보다 23%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 경찰청 통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1999년 성폭력 사범은 8,56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7,846건 보다 9.2% 증가한 수치이다.

성폭력 사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고소율과 사회전반의 왜곡된 인식, 의료진 및 수사관의 인식 부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치료와 수사의 도움을 얻는 적극적인 치유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본 상담소에서는 (사)서울 여성의 전화와 공동으로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경찰, 의료진, 상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각 워크숍의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각 경찰과 의료진에게 진료와 수사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 □ 워크숍 일정

- 2000년 6월 13~14, 28~29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 2000년 10월 12~13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심화 워크숍
- 2000년 10월 22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숍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연계의 중요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연계는 한 사건의 방향성 및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피해여성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옷차림이나 성 경험의 유무, 저항의 정도를 중심으로 심문이 진행되어 피해자이면서도 비난의 화살이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듯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각 상담소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파악과 현실적인 대처를 위해 법률상담을 하도록 한 후 경찰과 연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소수의 수사관들에게 의존하여 개별적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식적인 연계체계로서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연계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적 지원은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 임신과 성병 감염에 대한 예방과 조치, 법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우선적이고 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의료적 지원을 받거나 연계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배려,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의료진이 부족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대부분의 피해자는 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무지하고 성폭력피해자로 지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검사나 처치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진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연루될 때의 번거로움, 경제적 손실, 가해자측의 비난 등으로 인한 신상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사건을 기피하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자세가 관찰된다.

넷째, 성추행 등에서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상해의 원인이 성폭력임을 증명하는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

다섯째, 임신예방 및 처치, 성폭행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치, 미성년자의 출산에 대하여 도덕적, 법적, 의료적, 경제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의료진의 입장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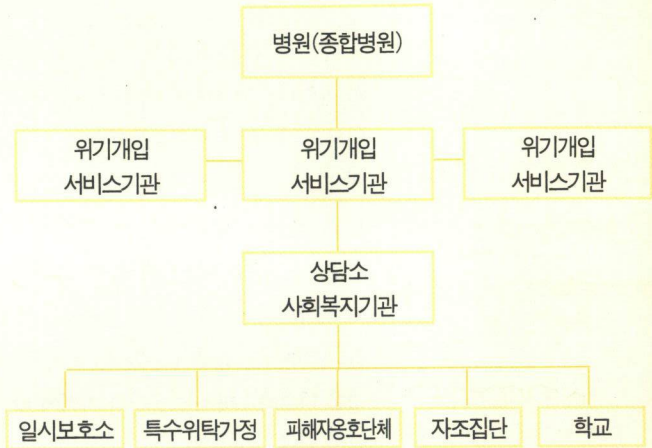
전문분야	지원내용
산부인과	신체적 상해에 대한 처치, 임신 및 성병에 대한 예방과 처치 증거물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조치
정신과	피해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세의 진단 및 치료 등
임상병리과	증거채취 및 보관방법에 대한 문의나 조치
외과, 정형외과	신체적 상해의 진단과 치료
법의학자	법의학적 소견 및 검사
비뇨기과, 감염내과	남성 피해의 검진과 에이즈 검사
가정의학	지역에서 피해자를 해당 전문분야로 연계
치과, 피부과, 안과	피해자의 상처와 질병을 치료

〈표1〉 의료분야 지원내용

###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각 전문분야와 관련시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표2〉는 이러한 통합적 지원체계 모형이다. 통합적 지원체계 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된다. 동시에 피해 직후 즉각적으로 의료적 조

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법적 처벌을 원할 경우 증거확보와 고소절차에 대한 안내와 경찰 연계 등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보호시설이나 미혼모시설 등 피해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적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표 2〉 성폭력사건의 통합적 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상담소, 의료진, 경찰로 이어진 통합체계가 될 때 성폭력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극복해나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는 다른 성폭력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와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연계망의 축인 각 상담소와 경찰, 의료진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본 상담소와 (사)서울 여성의 전화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 및 수사』가 통합적 지원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나눔터



# 유나의 편지

글 | 유나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싫었다.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모두 나에게서는 악몽이었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들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항상 나에게 손찌검이었다. 엄마는 아빠의 사망이후 알콜중독이 되었다. 6살인 나에게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곤욕이었다. 동네사람들은 나를 오빠네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오빠의 집으로 가는 날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잘 지내라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중략...

오빠는 나를 흔들어 깨웠다. 소름이 끼쳤다. 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오빠에게 빌기 시작했다. 무엇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빌어야 했다. 눈엔 어느샌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중략... 이게 꿈이길 바랐다.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씻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엄마를 원망하였다. 나를 낳아준 엄마가 제일로 미웠다. ...중략...

담임선생님과 나는 정류장에 도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표를 사고 자리에 앉았다. 그 사이에 성폭력상담소라고 쓰여있는 쪽지를 건네며 지리를 설명해 주셨다. 버스에 올라타고 선생님께 손을 흔들었다. ...중략... 열림터는 나의 상상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웬지 몸이 피곤했다. 침대에 누웠다. 막상 자려니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스러웠다.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려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유나의 일기 중에서 -







Dear. 선생님들께... \*^^\*

안녕하세요. 늦은 저녁, 여기는 사무실이고, 저는 유나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은 추운 탓을 하며 많이 늦장을 부려요. 아침에 이불 속에서 '10분만 더', '5분만 더' 하다보면 허둥지둥 거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미랑 같이 전쟁을 한바탕 했어요. 거기다 집에서 나오는 데 불은 켜는지, 수도물은 잠겼는지, 가스 밸브는 또 열려 있지 않은지... 암튼 이렇게 분주하게 신경을 쓰다가 헉헉거리면서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문득문득 열림터 생각이 간절하답니다(이구 ~~~ 다시 들어가고 싶당 정말루 ~).

그리고 보니 저랑 소미랑 열림터에 온지 1년이 넘었네요.

소미나 저나 지친 몸으로 이곳에 왔을 때... 생각 나세요? 정말로 믿고 의지할 아버지며 오빠한테서 피해를 입고.. 실망과 두려움으로 이곳에 왔을 때, 눈으로 웃어주시던 선생님들!

한없이 울어도 된다며 휴지를 손에 쥐어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커서 열림터를 떠나네요.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열림터 생활이 즐거웠다는 거겠죠. 선생님들이랑 놀러 가고(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하고(누군가로 부터 '공부' 하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으니까요), 좋은 친구도 사귀고 정말로 많은 것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렇게 소미와 둘도 없는 짝이 되었네요. 소미....., 유나가 오빠로부터 피해를 입고 열림터에 들어와 학교도 다니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즈음, 하얀 피부에 배시시 웃기를 잘하는 소미라는 아이가 입소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고, 자신이 겪어 온 일들의 상처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요.

외로움을 이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말을 걸었고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 더 어색해요. 나이로는 소미가 동생이지만 하는 행동은 저보다 언니인걸요. 이런 동생을 두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 좋지만.. 가끔은 자기의 아픔을 숨기면서 까지 저에게 웃음을 보이는 소미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루 사랑하는 동생 소미, 부럽지요? \*^^\*

우리가 가진 조그만 집(정확히는 방이지만) 생각만 하면 그냥 좋아요. 이 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집주인 아주머니께 월세 드리는 날은 손이 막 떨리지만 취직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것이 여간 대견스럽지가 않아요(으쓱으쓱, 헤헤).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퇴소 날짜는 다가오지, 방값을 제외하고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 날, 작은 트럭 하나 가득 실어진 물건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요. 냉장고, 밥솥, 밥그릇, 밀반찬이며 휴지까지... 뒤에서 하나 하나 준 비해 주신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지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보는 모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니 남부럽지 않게 살 거예요. 선생님들의 기대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거구요. 비록 지금은 고등학교 막 졸업한 취업생이지만 선생님들, 제 꿈 아시죠?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소미도 하고 싶어하는 것은 꼭 이룰거구요. 잠깐만, '소미 꿈이 가수니깐 그럼 나는 매니저로 뛰어야 하는 건가? 하하~~~~

선생님들, 저희 가끔씩 놀러 가면 반겨 줄까요? 선생님 곁에 없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이곳 열림터의 생활을 잊지 않을거예요.

상담소 선생님들, 아니 상담소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 사는 거 살짝만 지켜 봐주세요. 그럼 세상 사는데..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나눔터**



## 육아시설 아동의 특성과 그에 따른 성문제

글 | 김언정(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9월부터 11월 두달동안 전국 5개지역(전주, 대전, 대구, 부산, 서울)을 순회하는 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2000년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서 '육아시설 교사를 위한 성교육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보육교사 한 명당 보통 7-8명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육아시설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210개 시설 중 100개 시설 170여명 교사가 참여하여 성교육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교육센터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염려하고 예상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2000년 상반기 동안 육아시설 2곳에서의 성교육과 캠프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워크숍에서 만난 육아시설의 선생님들 역시 우리가 보았던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체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나, 본 상담소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보았던 경험과 워크숍에서 만난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육아시설 아동의 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음란물에 더 쉽게 노출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춘기 때에 음란물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여느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육아시설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 음란물에 노출되곤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음란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일단 시설에 들어와서 또래집단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함께 적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뚜렷한 시설 내 아동들간의 관계 속에서 강압에 의해 함께 음란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 내용은 선배들의 경험이나 들은 이야기들과 함께 더욱 과장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2) 애정이 담긴 스킨십과 성폭력을 혼동하기 쉽다.

일반적인 아동들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교사나 동네 이웃 등 자신과 친숙한 사람일 경우 성폭력을 애정이 담긴 스킨십과 혼동하는 때가 많다. 그런데 육아시설 아동 중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부족하여 쉽게 낯선 사람에게도 안기고 몸을 부비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아동들의 경우 성폭력과 스킨십을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우며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더욱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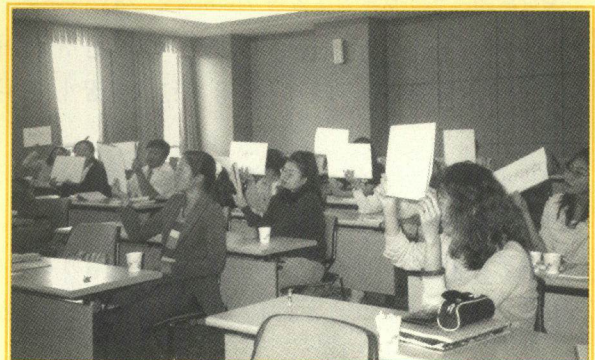
### (3) 직접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실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성적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호기심은 자위나 환상 혹은 성폭력 등을 통해 실험되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육아시설 아동의 경우는 실제로 성적인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대상의 선택이 용이한 환경에 놓여있다. 피를 나는 혈육이 아니면서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함께 거주하게 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아이들의 경우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거나 들은 것을 실제로 행해보는 것이 쉽게 가능한 상황이며 시설 내에서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은 사실상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들이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용이하며,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계질서가 뚜렷한 시설 내 아동간의 관계 속에서 "언제까지 어디로 나와"와 같은 명령을 거역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한 명의 보육교사가 10명 가까운 아이들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 (4)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어렵다.

예전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육아시설로 보내졌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부모나 친척이 있어도 경제적 상황 등으로 육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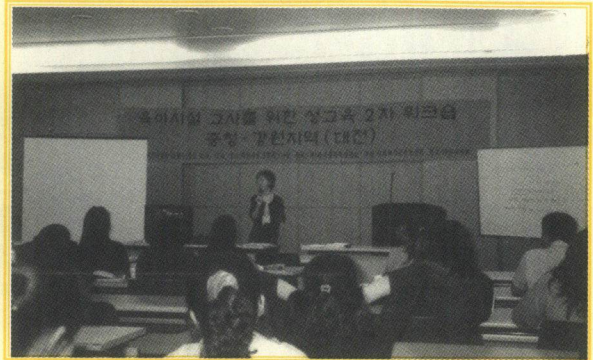
설에 맡겨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버린 이 아이들은 상실감이 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른에 대한 신뢰감이 적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보육교사나 양호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서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다 보니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성폭력 문제 역시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거나 묻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육아시설 교사들에게 올바른 성인식과 성지식을 알려주면서 대상별로 구체적인 성교육 방법론을 교육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으로 잡았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이틀동안 내내 '외부인사보다는 육아시설에서 아동들과 직접 생활하는 보육교사들이 생활 속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밝혔지만, 실제로 육아시설의 교사들은 이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였다. 여기에는 보육교사들의 의지의 부족으로 볼 수만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함께 털어놓기도 하였다. 이 의견들을 수렴하여 육아시설 아동 대상의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은 한 명의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아이의 수가 적정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육아시설은 보통 주방과 욕실이 부족하고 몇 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처럼 생긴 각 집에서 한 명의 보육교사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각 시설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보육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최소 7-8명 선이었고 많게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의 수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따라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나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2) 보육교사 준비 교육에 의무적으로 성교육, 성상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발견하거나 아이들간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 대처할 방법을 몰라 고민되는 때가 많았다는 보육교사들이 많았다. 이는 보육교사들 자체가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인지라 성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지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넘겨도 되는 일들을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 과민반응을 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 일들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받는 교육에 성교육, 성상담과 관련된 내용이 일정 시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과정 중에도 재교육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성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각 시설에 보급되어야 한다.**

성교육을 할 때 시청각 매체에 민감한 요즘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는 점점 필수가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른 다양한 도구와 자료들(그림, 인형, 모형, 비디오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료들이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보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시설에서는 재정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무료로 배포되기를 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시설에서 가장 사용하기 간편한 비디오 자료를 각 시설에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육아시설 교사 스스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눔터**



# 장애인 성교육이 남긴 과제

글 | 유은주(본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성폭력문제연구소는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을 통해 이전에는 다뤄오지 못했던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된 성교육 사업은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고려되지 못했던 장애인의 성적 권리의 문제를 인권운동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상담소가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을 통해 지원해 온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이미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이 지니는 문제점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만들어 내는 문제는 그와는 별도의 노력과 기술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연구소가 진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사업에 대한 기대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여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대한 문의 전화나, 진행과정에서 조언을 구했던 전문가들의 진지한 관심들과 무보수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에 우려하는 활동가들에게서 상담소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인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수]에 연수 행사장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인원이 참가해 끝까지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장애인 본인에서부터 장애인 주변에서 일하는 여러

층위의 사람들로써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갈증과 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연구소의 사업 결과로 나온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었다.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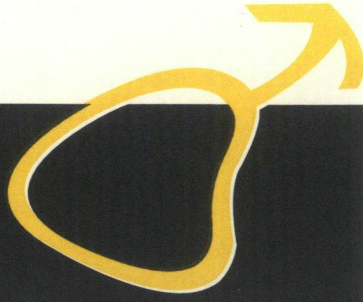
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성교육 일반에 대한 교육을 장애인에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시도가 현 단계에서 매우 절실하다는 견해가 우세했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 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장애 영역은 정신지체 경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에게는 연구소의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사업이라는 목표 자체가 무색할만큼 협소한 범위밖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는 장애인 성교육 사업이 상담소의 중요 사업 목표중 하나인 '여성의 성적 권리 확보를 위한 인권 운동 강화' 부문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 희망을 건다. 본 사업에서 여러 한계사항으로 접어든 각 장애 영역별 장애 정도별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작업과 더불어 연수 프로그램 행사에서 쟁점이 되었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성폭력 문제이기도 한 장애인이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남겨진 과제로 선정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눔터**





# 성평등문화만들기 사이버연속토론회를 정리하며

글 | 김영정(본 상담소 정보화사업부 간사)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은 행복하기만 할까? 남성들은 수혜자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이면에서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장'이나 '장남'으로서 겪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어릴 때부터 '사내대장부' 되기를 강요당하고, 침실에서는 '변강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한다. <2000 성평등문화만들기 사이버연속 토론회>는 남성들이 겪는 이러한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성들이 겪는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낳은 구조와 문화에 대해 비판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이버토론회의 목표였다.

##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넷츠고, 유니텔, 천리안 토론실에서 진행된 2차 토론회는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 가족부양은 남자 몫?"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제각기 다른 역할과 성격이 강요됨으로써 야기되는 불평등한 문화를 많이 경험해왔다. 남성에게는 가족부양의 책임과 남성다운 성격을,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의 책임과 여성다움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고정된 인식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고통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장이었다.

남성들의 의식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라면 누구나 이런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은 가정의 결속이나 지속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가정파괴범은 국가나 사회가 아닐까요?——천리안, ID snowhch

여성의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으로만 인식된다면 남성일방에게만 지워지는 책임을 같이 나누고 그만큼 평등하고 균형된 사회로 나가는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주류화되는 것이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패널 이미경(국회의원)

먼저, 자신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담을 진솔하게 올려준 참여자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극복할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참여자들도 있었다. 첫째, 가정 내에서 부부가 평등하게 가사분담을 해야하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둘째, 맞벌이 부부가 직장가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셋째,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남녀의 역할을 고정화하는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정력, 남성의 상징인가?>

상대방의 의사나 민감한 반응에 귀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된 틀, 전호맥락 따질 것도 없이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옳다고 밀어부치게 만드는 고집, 어떻게든 끝을 보려는 막무가내식 의지가 성적 행위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만 남자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콤플렉스가 아닌가 말이다. ——패널 이경미(여성학자)

사회적 담론은 성에 특정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곤 한다. 즉 성관계는 '남자구실'로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수단'인 동시에 '여성을 지배하는 행위'이며, 이에 관한 문제는 '의학이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육체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성관계에 부여된 이러한 의미는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남성자신을 억압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천리안, ID 구조주의



11월 24일부터 30까지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의 경제적 부분에 이어 성적인 부분에서 남성에게 강요되는 부담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천리안, 넷츠고, 유니텔, 여자와닷컴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토론회의 제목은 “정력, 남성의 상징인가?”였다. 비아그라, 의무방어전, 정력제..... ‘강한 남성’ 콤플렉스와 관련된 갖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접하게 된다. 정력은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골레이기도 하다. 또한, ‘남성은 여성을 만족시켜야 한다’거나 ‘남성은 정력이 세야 한다’는 인식은 더 나아가 남성의 성을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것으로, 그리고 ‘절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성관계의 주도성을 일방적으로 남성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이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욕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성욕은 본성이지만 성행동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남자들의 성행동에 책임과 윤리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으며, 여성 토론자들의 경우 ‘진정한 성적 매력은 무조건 센 정력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다’는 의견이 많았다. 패널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 ‘강한 남자의 설정은 성기중심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여성운동은 남성들을 싸잡아 비난한다’거나 ‘남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성 자신이나 돌아보라’는 식의 게시물을 올려 토론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폄하시키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가로막는 모습이 이번에도 여전히 나타났다. 여성운동단체에 적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이들을 보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성평등을 도모하는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남녀 모두에게 억압이 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강요에서 벗어나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2000 성평등문화만들기 사이버연속토론회>의 궁극적인 목표와 노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에서 계속될 것이다. **남뎨터**

## 영화평

- 영화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 -

### 그들 혹은 우리들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

글 | 문효진(본상담소 재정부장)

영상매체로서 영화 장르에 대한 나의 선호도는 대체로 다큐멘터리와 시대극 그리고 SF 쪽이다. 다큐멘터리가 현재 진행중인 혹은 조금

씩 빛을 바래 가는 과거의 현실에 대한 군더더기 없는 서사에 가깝다면, 시대극은 지난 과거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가 덧붙은 서정적 풍광을 주로 드러내지 않나 싶다. 그리고 SF는 앞서 두 장르가 담아내지 못한 영역-가까운 혹은 조금은 먼 미래에 대한 언급을 상상과 초월, 가능성 있는 창조의 이미지를 담아내어 놓는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현실과 배제되어지지 않는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향이 영화와 함께 했던 내 온갖 두리번거림의 주요 테마였던 셈이다.

덴마크의 젊은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Thomas Vinterberg)의 영화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은 다분히 실험적인 방식으로 평범한 가족의 이면에 감추어진 낯설고 생경하며 당혹스럽기까지 한 진실을 들추어낸다. 일체의 인위적인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6mm 디지털 카메라로만 장면을 찍어 내려간 이 영화는 그리하여 다른 일련의 영화들에서 관습적으로 쓰여진 인위적 화면 가공에 익숙한 관객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아버지의 60회 생일 파티,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그 흥겨운 자리에서 큰아들에 의해 밝혀지는 아버지의 감추어진 이면의 모습은 이제 심적인 불편함마저 관객들에게 더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영화는 근친성폭력을 다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재현은 하지 않는다. 이는 시간을 역행하여 상황을 재현할 수 없다는 그래서 과거회상장면은 있을 수 없다는 ‘도그마’ 서약에 충실한 촬영기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인해 영화는 상당히 중요한 덕목을 갖추게 된다. 재현이라는 것이 가공된 연기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린 이에게 행하여지는 성적인 폭력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재생산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근친성폭력 후유증의 단면을 담담히 보여주며 그 극복의 대안 한 가지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은 관객으로 하여금 많은 인내심과 기다림을 요구하게 하는 영화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자 결심하고 여러 사람 앞에 당당히 서기까지의 그 절절한 아픔의 얼마쯤을 감독은 이렇게 관객의 몫으로 나눠 놓았는지도 모른다.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어머니의 침묵과 몰이해. 그리고 어찌됐든 완벽하고 행복하게 보여져왔던 현실을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부정하지 않으려 애쓰던 일가친척들의 틈바구니에서 한 사람은 안으로의 침잠을, 또 한사람은 밖으로의 드러냄을 택했다. 안으로의 침잠을 택했던 이가 여성이었고, 밖으로의 드러냄을 택한 이가 남성이었다는 설정은 그냥 단순한 것 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진실이 모두의 머리 위로 내리찍는 아침, 아버지는 모두가 모인 아침식탁에서 냉정히 배제되어진다. 이 땅의 많은 근친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냄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지는 현실에서 그것은 새로운 지향의 이미지였다.

성인이 된 큰아들이 그 시절 어린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 왔을때, 그 아버지의 답변은 이랬다. 너희는 그때 그런 정도의 용도 밖에 없었다고. 그래, 그게 우리가 소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들의 진실이었던 게다. **남뎨터**



##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유래와 의미

글 | 장윤경(본 상담소 사무국장)

여성폭력추방주간( 16 Day of Activism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은 1991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미국의 여성국제지도력센터(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에 모인 세계의 여성운동가 23명이 "여성, 폭력,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선정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성폭력추방주일이 제정되기까지 1981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로 제정하여 활동하여 왔다. 이 날을 세계성폭력추방의 날로 제정한 것은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념한 것이다.

또한 12월 4일은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대생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남자에 의해 집단 살해된 날이다. 그리고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이러한 기간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여성폭력추방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양성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에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하고 불가분한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1995년 제 4차 UN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에 의하면 여성폭력철폐를 위해서는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마련, 그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각국에게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여성들의 노력에 의하여 1999년부터 UN총회에서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공식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는 본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여성폭력추방주일을 선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이러한 여성운동계의 노력과 세계적인 흐름에 힘입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등 법·제도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올해로 10번째의 여성폭력추방주일을 맞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정빈 외무부 장관의 성희롱 발언, 장원씨의 성추행사건, 노예매춘에 시달리다 화재로 숨진 군산지역 매춘여성들, 롯데호텔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상담소에 걸려오는 무수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현실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추방주간 기간 동안에는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념 토론회 "2000, 여성인권 다시 생각하기"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에서 폭력추방을 기원하는 촛불행진, 성상품화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본 상담소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연수,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이버 연속 토론회: 정력, 남성의 상징인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적 회복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그리고 더욱 큰 의미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인권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준 것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강산도 많이 변했고 여성의 인권현실도 10년 전의 그 날보다는 변했다. 물론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바로 서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여성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주일을 계기로 멈추지 않고, 지지치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나눔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도문의 시행을 앞두고

글 | 변용재(변호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줄여 말할 것입니다)이 시행되지 어느덧 반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원조교제(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의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특히 그 계도문의 일부분으로서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당시부터 있어 왔던 범죄자 신상 공개 무용론(無用論) 또한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이란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또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재료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 있듯이, 법률이란 것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자 신상공개의 유 무용여부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반찬 또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계도문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도문에는 단순히 범죄자의 신상공개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보나 담화문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도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화나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왕에 발표된 계도문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계도문 발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렇게 발표된 계도문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형법의 원칙에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계도문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진실성 여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은 기왕에 발표된 계도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계도문을 전국적으로 가두에서 배포하여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잘 보관하여 향후 그들이 공직에 취임하거나 기타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할 때 국민들에게 적절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 범죄자가 많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지역단체장이나 직종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매우 위험한 상습적인 범죄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재범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경찰 등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계도문에 게재된 범죄사실 및 신상공개 내용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도문에 게재된 범죄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자칫하면 한낱 이야기거리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잘못 활용된 범죄사실 공개는 피해 청소년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범죄자 신상 공개 폐지론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문제(특히 이른바 원조교제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온갖 경로를 통하여 매매춘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터**



## 일상속의 성문화 읽기 -여기는 이스라엘 키부츠입니다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모임인 법정지원모임의 홈페이지(www.supporters.or.kr)에 연재되고 있는 글입니다. 상담소 지킴이였던 필자의 성문화읽기가 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키부츠입니다

### 첫 번째

안녕하세요?

성문화가 이스라엘 키부츠로 이사왔습니다. 이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요.

한국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9명 정도입니다. 영어공부나 유럽친구를 사귀고 싶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적합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영어를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까요.

저의 경우는, 혼자 고독을 씹고자 이 곳에 왔는데, 고독은 커녕 외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야 스스로 전파를 하며 혼자 키부츠 내를 좀머썬처럼 떠돌아 다녔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가 왕따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과감히 뛰어들었지요. 전략은 “집대문화”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두번은 기쁨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저는 한국인 그룹에서 최고의 연장자로 일명 “대모”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은 한국에서의 “보살핌”의 역할이 저에게 기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먹을 것을 만드는 것에 분주해야 하는... 남자애들은 물론 설거지를 하지요. 돌아가면서... 9명의 한국인 중에 3명이 여자인데, 그들의 역할이 한국의 모습을 판박이 한 것이지요. 다만 다른 것은 설거지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는 9명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여자 친구가 매일 밥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자애들이 밥을 못해서 밥을 하지 않나요? .

왜 그들은 “대부”라는 명칭으로 “밥을 하는 행위”가 기대되어 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제가 “대모”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친절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저에게 이 곳 키부츠에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해 보지 못했던 일을 많이 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음껏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두 번째

며칠 전...

어떤 외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 외국인 남자가 다른 외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여자가 내 팔을 물어서 이렇게 빨강다는 등...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참고로 그들은 지붕 위에서 그런 일을 가졌는데..) 창피했다는 등....

풍경 자체가 한국의 남자들을 떠올리게 했다.

강의실 뒤쪽에 앉아서... 누가 누구랑 잤다는 등...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 여자만 학교를 쉬거나, 아님 그만두거나....

남자들에게는 성관계가 자랑스런 전력이 되고 여자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외국 남자는 이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여자는 그 남자의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서 사과를 받아내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무언가 달라질 것인가?... 고민... 그 외국인과 같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 여자에게 약간의 조언을 구했다. 물론 소문의 대상이 되는 여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곳에서도 “쉬워보이는 여자”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는 듯하다.

외국인 친구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일로 받아 들여 진다고 한다. 물론 서로 원하고, 연인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결론...

그 외국인 남자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소문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소문이 그냥 잊혀지길 바랄 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결론에 이른 것일까?

### 세 번째

이 곳에 있다보면, 나의 성을 넘어서 인종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집을 쓰는 외국인 여자가 모든 일을 한국 남자 애들에게 시키려는 것(혹은 이용하는)이 보일 때이다. 한국남자애들은 영어도 배울 겸, 노란 머리와 친해질 겸, 어디서 나온 에티켓인지가 마구 솟아 나온다. 그것이 한국인의 배푸는 인정을 보여주려는 것인 듯..

이럴 때, 난 내가 여자이기 전에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는 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에서 가부장주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평등은 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영어를 쓰는 혹은 제 2의 언어로 영어를 쓴다고 하는 선진국같은(?) 나라의 애들이 동양아이를 데리고 노는 듯한 행동들.... (자세히 적기에는 컴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나는 그 모든 불평등에 분노한다.

### 네 번째

벌써 4회를 연재하고 있는데... 조회수를 보니 별 호응이 없군요.

그러나 "작은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성문화에 대한 저의 진술을 멈출 수는 없군요.

"12시간만 쫓아 다녀봐!"

어떤 남자 한국 녀석이 우리 키부츠를 놀러 왔다. 이집트를 가기 위해..

이집트는 덴마크 여자 친구가 함께 갈 예정이라고 한다. 남자녀석들은 서양여자친구를 만든 그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이 좁은 키부츠 내에서(발런티어가 40명이 됨) 한국남자, 외국남자 할 것 없이 그들은 여자들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의 평가를 끊임없이 해대고 어떻게든 잠자리로 꼬셔볼까 짱돌을 굴린다. 북부 유럽 여성들의 성의 자유는 때로 이런 녀석들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혹은 그 녀들이 남자들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꼬셨어? 덴마크 여자들은 다 이쁘던 데."

(참고로 남자들이 여자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 주변인들이 묻는 첫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90%가..."그 여자, 이뻐?")

"12시간만 쫓아 다녀봐. 그럼 돼."

### 다섯 번째

"한국에서 제일 한심한 여자 세 부류는?"

밤늦게까지 한국인들과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다가 던져진 질문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이미 한국에서 농담으로 되어졌던 질문이라고 기억되어진다. 답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냈던 사람의 답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대 나오고 취직 못한 여자
2. 이대 나오고 화장 못하는 여자
3. 고대 나온 여자 (못생긴 여자만 다니는 학교라나?)

답을 알고서 분노를 금치 못하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회가 "이즘미"를 우습게 여기는 풍조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첫 번째 답인 "서울대"를 나오고도 취직을 못한 "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직에서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남자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최고의 대우나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여자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도 그 기회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면.... 그 보다 못한 학벌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이는 여성의 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적나라하게 꼬집는 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웃음이 나오겠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 여섯 번째

"여자를 데려가야 했어. 그게 훨씬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야."

요르단의 페트라를 다녀온 남자에게 "누나~" 하며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여자"가 가면 물건값을 마구 깎아 주더라는 것이었다.

그 애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 애의 말속에 그가 생각하는 "여자"에 대해 어떤 "용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었다. "여자"와 가는 것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는데 싸게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동료로 함께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일 수는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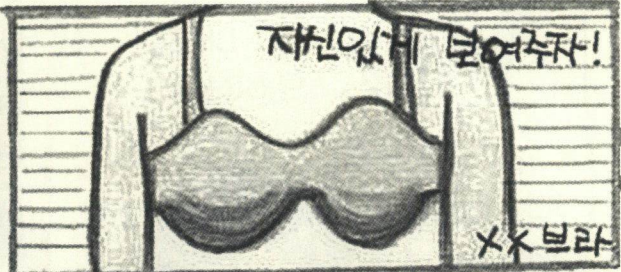
(37 호에서 계속됩니다.)

나눔터



# 상담소 가는 길의 성추행 사건

글·그림 | 한전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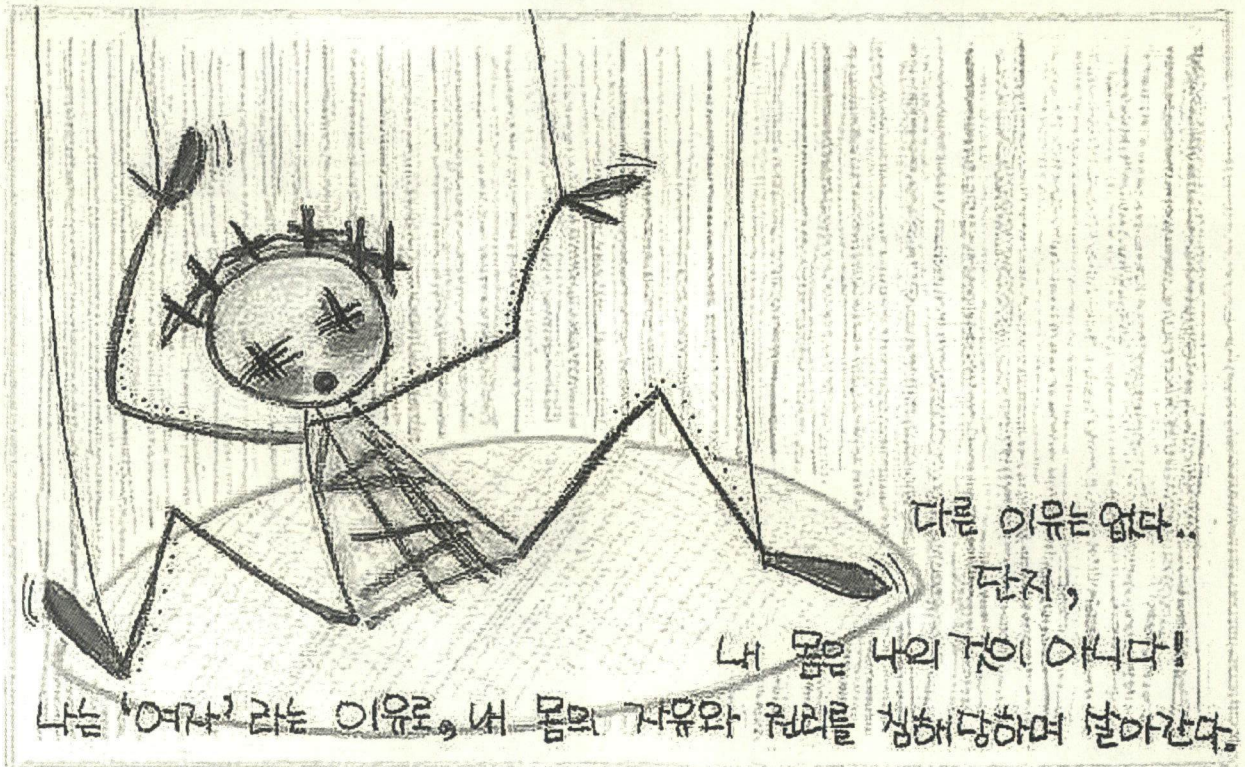




나를 더 경악시킨 건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모습이 어떻게든, 난 인간이 아닌 노위 '여자'다.



\* 글. 그림 해진정화 \*



○ **새로 나온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6500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사건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경찰수사진 워크숍 자료.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태,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체크 리스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관련 법률 해설, 수사상의 유의점, 가정폭력에 관한 외국의 지원 체계와 방향성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숍 8500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진을 위한 워크숍 자료.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정신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료과정과 유의점,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관련 법률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3.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심화 워크숍 4500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들을 위한 워크숍 자료. 성폭력, 가정폭력의 상담지원사례,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가정폭력에 대한 외국의 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후유증, 성폭력피해자 산부인과 연계시 유의점, 성폭력, 가정폭력사건 법적 연계시 유의점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6500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하여 각 상담기관, 의료진, 경찰수사진,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 자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연계 및 수사, 성폭력피해자 산부인과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정신과 연계, 법적 처리시 유의점과 통합 연계 방안,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연계 방안 및 연계체계 모델, 연계지원의 현황과 연계 시의 문제점, 연계 모델 사례발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5.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 및 수사 3500원**

성폭력피해자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진과 경찰수사관을 위한 매뉴얼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성폭력사건에 관한 통합적 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과정과 유의점, 정신과 진료과정과 유의점,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찰수사지침 및 관련법률 해설, 전국성폭력상담기관 주소록, 성폭력피해자 지원병원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신은주, 오희옥, 윤혜진, 이소진, 이형선, 이효숙, 이희숙, 장윤경, 한은희, 한지원, 홍기선, 던킨도너츠, 유한킴벌리

○ **새로운신(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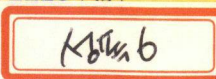
김진희, 박윤희, 윤정희

○ **7월부터 9월까지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구나은, 김강자, 김미경, 김미숙, 김언정, 김영정, 김정희, 김중구, 김주필, 김준호, 김현란, 김현식, 김혜원, 류재경, 문효진, 민응기, 박귀자, 박미라, 박미향, 박선희, 박윤숙, 박혜진, 박희경, 백명자, 백정선, 변인희, 서민자, 설연자, 신은주, 심수희, 심영희, 안홍례, 안연주,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현숙, 오희옥, 우안녕, 유은주, 유자인, 윤용미, 윤지희, 이경룡, 이경미, 이경애, 이명선, 이소진, 이순례, 이연실, 이영분, 이윤상, 이은정, 이주희, 이효숙, 이희숙, 임민희, 임순영, 임종은, 장연집, 장영복, 장윤경, 전석호, 정남운, 정대현, 정성광, 정옥분, 정진욱, 최동석, 최영애, 최용득, 최지너, 하은주, 하은주, 한상희, 허라금, 홍승아, 홍은정

○ **7월부터 9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광은하, 구길자, 구민지, 권혁진, 김경희, 김미경, 김미영, 김소명, 김순형, 김영애, 김일륜, 김정국, 김정수, 김정순, 김정신, 김혜숙, 김화영, 민재숙, 박경원, 박순주, 박준규, 박진숙, 배은경, 서성숙, 송성애, 안윤정, 우금희, 원혜정, 유숙영, 육향순, 이상근, 이선이, 이원장, 이윤미, 이은정, 이재인, 이정아, 이춘자, 이푸른메, 이혜경, 임자영, 전경림, 전범용, 정경란, 조소연, 주서현, 차계순, 최말순, 최옥경, 최유정, 최정운, 최지영, 한혜선, 홍성복, 홍숙기, 홍순기





##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니다. 귀하(사)가 기부하신 상금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비는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허은주 간사 / (02)576-7128

##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편을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김언정 부장 / (02)576-7128

##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이사 김삼화·문해란·박찬운·이명숙·이상엽·이은미·천병태·최영애·최보민·최은순·홍순기 ●김사 회계사/배자하 사무사/차재능 ●지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차옥덕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김삼화·김의창·남성렬·박성호·박찬운·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향아·임종인·장경호·장철우·정성광·정연순·최은순·최현희 경찰/김강자·이금형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심리학/김순진·김정규·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이원숙·한인영 상담심리학/권혜수 ●의료 가정의학/김종구·정영숙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황직준 비뇨기과/이유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금자·박종민·손인숙·윤경·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정경원·조삼현·조정현·최보민·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신의진·최보민 외과/오세민·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임상병리학/강정옥·문해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박수용·박진생·양창순·이수경·전지홍·조맹제·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김영선·김효선·서은미·이은미·천병태 흉부내과/안철민 ●재정 프리랜서/여남영 회계사/배자하·임종은 ●정보사업 통산/김형준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윤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혜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이인자 PD/교학찬 조소/홍성도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 장/박정순 지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강명구·김양희·김훈순·원용진·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사회복지학/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일·변해정·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강화정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김엘립·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회학/박진숙 ●소장 최영애